

한의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중년여성의 분노치유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관수*, 이상현**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nger treatment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by convergence korean medicine and humanities

Kwan-Su An*, Sang-Hyeon Lee**

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욕구만족이 결여된 일빙 상태의 자아를 웰빙상태의 자아로 바꾸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한국 중년여성의 분노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삶과 사회의 계급구조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분노는 이 모형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 인문학적 사고와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주체적인 삶의 소유자로 변화될 때에 치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의학과 인문학이 융합한 중년여성의 분노치유프로그램은 파일럿검사를 활용한다. 파일럿테스트는 사전 및 사후검사로 구성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사 트레이닝, (2) 사전검사 실행, (3) 4-6주에 걸쳐 4회기 분노치유 실시, (4) 사후검사 실행, (5) 한의사와 중년여성 분노치유자의 만남

주제어 : 한의학, 인문학, 분노치유, 중년여성, 융합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hange the self as ill being lacking need satisfaction to the self as wellbeing through the communication process. An anger among Korean middle-aged women is formed in a unique socio-cultural context, life,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society where they belong to. Thus, anger for middle-aged woman can be cured when both the doctor and the patient are equipped with humanistic thinking and positions, and the angry self can be changed into the owner of subjective lif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used an anger treatment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by convergence. Korean medicine and humanities uses Pilot test.

Key Words : Korean Medicine, Humanities, Anger Treatment, Middle-aged Woman, Convergence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다. 단지 그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치밀어오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에 억압되고, 그 억압된 내용을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다양

* 이 논문은 2014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Received 16 September 2014, Revised 22 Octo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kwan-Su An(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Email: Ksan@wonk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 방식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오려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중 신체화된 질병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은 대부분 분노조절장애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노조절의 억압뿐만 아니라, 표출을 한다 해도 잘못된 표출을 하면, 다시 말해서 분노의 급격한 표현은 오히려 심장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심장학저널(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 실려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http://healthcare.joinsmsn.com/news>). 분노는 이 처럼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유지하기는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노치유 프로그램 개발인가?

분노의 발생은 그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년여성의 분노 경험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노 경험의 본질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타인중심적 사고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 예컨대, 한국의 성인 여성은 중년이후부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에 따른 많은 변화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도전을 받게 되며,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함께 받으며 산다[2]. 또한, 자식과 며느리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소외감, 분노의 삭임, 경제력 등의 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끓어오르는 분노 경험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사회에서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여성은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분노 관련 증후군인 화병은 한국문화권에서만 독특하게 발생하는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중년기는 인생주기에서 어느 발달시기보다 사회 구조 속에서 부과된 역할과 관련하여 분노 경험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의 감정 표현에 대해 억압적이고 남에게 분노를 표현 하지 않는 것을 사회적 덕목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중년 여성의 분노경험은 다른 발달시기와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성[4]을 나타낸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분노의 장기적 내재화는 심각한 화병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년기 여성의 분노 경험은 독특한 한국 문화권의 삶 및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독특하게 발병하는 화병은 DSM-VI에서 한국문화와 관련된 증후군으로 분노의 억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인생주기보다도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분노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본다.

둘째, 왜 한의학과 인문학의 융합연구가 필요한가?

한국은 근대 서양에서 유래한 의학과 민족의 전통 한의학이 현실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다. 한국 중년 여성의 분노 증상은 서양의학의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방법으로는 쉽게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중년 여성의 분노는 독특한 한국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 관련 증후군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정형화된 여성의 삶과 존재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해온 질병이다. 한의학은 한국인의 삶과 존재 그리고 문화, 즉 한국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적 환경과 밀착해서 성립하며 발전해온 학문이다. 이런 연유로, 한의학의 성립 자체가 인문학적 토양을 기반으로 한다. 한의학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며, 삶이 추구하는 행복과 건강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한의학은 이처럼 인간의 삶과 존재 그리고 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인문학적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분노치유를 위한 융합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유 접근방법 외에도 인문학적 치유 접근방식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또한, 여성의 분노 증상은 본질적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불통에서 야기되는 답답함, 소통의 결핍은 삶에서 심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쉽다. 인문치료에서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5, 6, 7, 8]. 그러한 인식론적 풍토 속에서도 기존의 한의학적 치유 방식에서는 몸과 마음에 대한 소통의 문제를 간과해 왔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분노치유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근본적으로 소통의 기술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접근을 통해 화를 나게 하는 근본적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러한 상황 해석을 전환함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에서는 중년여성의 분노적 감정에서 비롯되는 질병(울병, 화병, 恨 등)등을 서양의학 진단체계와는 다르게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식해왔다.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 즉 기본적으로 물질과 비물질 을 선명하게 구획하지 않는다. 모호해서라기보다는 둘이 항상 중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9]. 따라서 한의학 에서는 울병, 화병과 같은 분노적 질병들의 치유를 정(精)·기(氣)·신(神)의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분노가 발생하는 근본 상황은 정·기·신의 균형 상실, 즉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의 황폐함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기·신의 균형 상실과 회복도 결국은 인간의 삶과 존재 그리고 문화적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분노의 치유 방식도 수술을 통해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형태가 아니라 생명의 원기,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적 환경과의 균형을 되살려주는 데에 한의학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인문학적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한의학의 임상진료에서는 주로 몸의 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인문학적 접근은 치유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의학에서 임상적으로 다루어왔던 기존의 분노치유적 방법과 인문학적 접근 방법들 간의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본다.

인간의 분노(화)는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스스로 욕구 충족이 안될 때 발생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욕구 충족이 결여된 ill-being의 자아를 소통의 과정을 통해 well-being의 자아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적 분노치유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에 있다. 무엇보다도 분노 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분노 당사자)가 분노의 발생이 분노에 대한 자신의 이해 부족이 원인임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분노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소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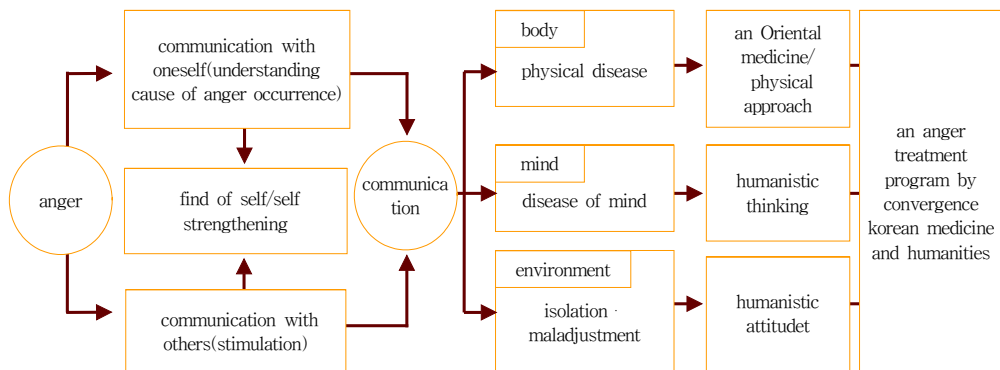
단계를 거쳐 성공적인 분노 치유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융합적 분노치유프로그램의 개념적 구조는 [Fig. 1]과 같다.

2. Related Works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중년여성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의 증상에 관한 연구[10, 11]가 대부분이며, 화병의 전반적인 원인적 측면과 신체적·정신적 증상에 대한 연구[12, 13, 14], 분노 억제와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연구[15]가 행해졌지만 화병의 원인이 되는 중년여성의 분노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분노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상자가 주로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6, 17]. 이외에도 분노치유를 위한 국내·외 의학연구 및 인문학 적용연구 및 저서들[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성별에 따른 중년기 성인의 화병 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28]가 발표되었지만 신체적 증상에 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어서 독특한 한국문화 내에서의 중년여성의 분노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분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은 분노의 정서와 분노표현방식 모두 주관적 건강지각 및 안



[Fig. 2] A Model of Development for an anger treatment program by convergence

녕의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부정적인 건강생활양식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9]. 즉 높은 분노와 적개심 수준은 신체적 운동이나 자기관리 소홀과 같은 불충분한 건강관련 습관들 및 알코올과 같은 약물복용과 정신적 건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노가 높을 때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저하된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분노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30]나 고혈압, 심장질환, 암과 같은 질병과 분노관계를 규명하는 연구[31]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중년여성이 일상생활(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노에 관한 연구, 분노의 발생 원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연구, 분노발생과 같은 복잡한 양상에 대한 다학문적 융합연구, 그리고 인문학과 한의학을 융합하여 분노치유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분노 관련 질환이 분노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삶, 존재 그리고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따라서 중년여성 분노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몸 관련 질병을 의학적으로 처방하는 한의학과 중년여성의 삶과 밀접한 맥락을 갖는 인문학적 본질을 융합하는 분노치유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Proposed Method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분노치유 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고 할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분노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40대-60대 중년여성으로 하고 약 10~15명이 연구 참여 대상자가 된다. 파일럿테스트 대상자는 분노치유에 관심 있는 한의사 2~3명으로 구성한다. 파일럿테스트는 한 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절차로 실행된다. (1)한의사 트레이닝 (2)사전 검사 실시 (3)분노치유 4회기 실시(약 4-6주 소요) (4)사후검사 실시 (5)연구 참여 한의사 및 중년여성 면담. 사전 및 사후검사는 분노척도 검사, 분노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중년 여성용/한의사용), 분노치유 프로그램지식 및 수행에 대한 평가(실행된 유닛의 목표 및 내용과 관련된 평가)가 실시되며,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전-사후검사에 대해 종속변인 t-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4. Experimental Results

본 프로그램의 특성은 한의사가 전통의학서적에 문자화된 치유 방식 그대로 환자를 다루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에서 분노치유는 출발한다.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을 통해 치유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소통을 위해서 한의사 역시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중년여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리기 위해서 한의사가 인문학적인 안목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험집단 한의사들에 의해 기존의 한의학적 지식을 적용한 물리적 치료와는 별도로 중년여성은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욕구가 충족(치유)되는 자아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융합분노치유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은 의사-환자 간에 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치료자의 인문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자세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융합분노치유프로그램의 모형은 [Fig. 2]와 같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유방법 외에도 인문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명상, 대화, 삶의 기술(Lebenskunst) 터득, 솔직하게 말하기, 공감으로 듣기, 철학적 상담, 철학 실천 방법 등이 한의학적 접근방법과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의학과 인문학적 지식이 융합된 분노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그 프로그램을 한방병원에서 분노질환을 경험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실제로 임상적으로 적용해봄으로서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5. Conclusion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분노치유가 기존의 한의학적 치료와는 별도로 인문학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중년여성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소통의 결핍으로 인한 일

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분노치유를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본 융합분노치유프로그램에서는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인문학적인 자세와 안목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노질환을 겪고 있는 중년여성 대상자의 모집과 파일럿 테스트 대상자인 한의사의 모집 그리고 매뉴얼에 의한 한의사의 인문학적인 자질 함양을 위한 트레이닝 실시 결과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로는,

첫째, 한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융합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한의학과 인문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영역간의 융합을 통해 개별적 학문영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분노치유 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한방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실천적 연구주제이다.

셋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학문적 융합분노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연구가 기존에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분노 치유’에 인문학적인 안목의 접근을 시도하는 융합연구 형태로서 분노치유에 대한 새로운 연구패러다임 및 방법론의 전환을 시도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4

REFERENCES

- [1] Y. M. Lee,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women's anger. Disserta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95. 2002.
- [2] L. M. Park, "Improved Embryo Development With Decreased Apoptosis in Blastomeres After the Treatment of Cloned Bovine Embryos With beta-Mercaptoethanol and Hemoglobin". *Molecular Reproduction & Development*. Vol. 67, No. 2, 2004.
- [3] S. H. Lee, K. S. Oh, S. Y. Cho, S. J. Bae, S. H. Lee, & Y. C. Kim, A clinical study of Hwa-Byung- "Hwa-Byung" as the reaction of anger. *J. Koryo Gen Hosp.* 12, 354, 1989.
- [4] Y. M. Lee,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women's anger. Disserta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95, No. 2. 2002.
- [5] K. S. Yu, "A Case Study on Humanities Therapy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of an Acquired Disabled Patient". *Humanities & sciences research. G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nities & sciences*. Vol. 36, pp, 609-630, 2009.
- [6] I. J. Kim, "A Theory of Humanities Therapy Based on the Communication Model". *Humanities & Sciences Research. G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nities & sciences*. Vol. 25, pp, 347-367, 2010.
- [7] H. Y. Kim, "A Model of Humanities Therapy, Humanities Academy: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rogram". *Humanities & sciences research. G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nities & sciences*. Vol. 23, pp, 471-502, 2009.
- [8] S. M. Jung, "Intrapersonal Communicational Aspects through Checking Communication-Journal Writing in Center". *The journal of linguistic. Joongwo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Vol. 22, pp, 249-275, 2012.
- [9] M. S. Koh, Dong Eui Bo Gam. Seoul: Bookdramang Press, 118. 2012.
- [10] M. H. Sung,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ric Symptom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6(4). 2000.
- [11] G. J. Park, & K H. Lee, A Structural Model for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1). 2002.

- [12] J. U. Kim, S. G. Lee, & U. Y. Hwang, A Case Study on Hwabyung.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7(1). 1996.
- [13] H. J. Koh, & H. Y. Kim, Literatures Review on Womens in Hwa Byung. *Journal of Kye Myung Nursing*. 3(1). 1999.
- [14] H. R. Kim, & K. Park, The Effects of Lifestress and Anger of Somatization of Women. *Journal of Psychotherapy*. 6(1). pp, 47-63, 2006.
- [15] M. C. Jeong, & C. Y. Kang, A Study on Experience of Group Art Therapy for Women with Suppressed Anger. *Journal of Psychotherapy*. 7(1). pp, 1-22, 2007.
- [16] S. D. Kang, Anger Control and its Valida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5. pp, 81-143. 1997.
- [17] S. G. Seo, & S. M. Kwon, Verification of the dual cognitive meditation model through the cognitive-behavior program for anger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3). pp, 495-510, 2005.
- [18] S. H. Kim, "Introduction for Philosophical Therapy-Self-Awareness, Self-Care, Dialogue as the Three Axes of Philosophical Therapy". *Research of philosophy.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07, pp, 117-139, 2008.
- [19] J. O. Lee, "Zusammenfassung- Theorie und Falle der existenzpha- nomenologischen Pilosophischen Praxis-". *The Journal of humanities. Kyung hee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nities & science*. Vol. 21, pp, 83-113, 2012.
- [20] Y. E. Rhee,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ritical Examination of Gerd Achenbach's View". *Bumhan phylosophy. Bumhan phylosophical association*. Vol. 53, pp, 387-408, 2009.
- [21] J. H. Kim, "Philosophy & Mind Therapy". *book world*. pp, 416-431, 2013.
- [22] N. S. Karnik, Foster Children and ADHD: Anger, Violence, and Institutional Power.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21(4), pp, 199-214, 2000.
- [23] Batthyany, A. D. Guttman. *Empirical Research in logotherapy and Meaning Oriented Psychotherapy*. Phoenix AZ; Zeig Tucker. 2006.
- [24] Schmidt, Wilhelm. *Ökologische Lebenskunst*. Frankfurt a. M. 2008.
- [25] Hughes, E. G. *Art Therapy as a Healing Tool for Sub-fertile Women*.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31(1), pp, 27-36, 2010.
- [26] Achenbach, Gerd B. *Zur Einführung der philosophischen Praxis*. köln. 2010.
- [27] Poltrum, Martin, *Klinische Philo- sophie*. Lengerich. 2010.
- [28] N. S. Kim, & K. E. Lee, Gender Diffrences in factors affecting Hwa-byung symptoms with middle-age people. *J. Korean Acad Fundam Nurs*. 19(1), pp, 98-108, 2012.
- [29] S. I. Choi, Z. S. Kim, M. S. Shin, M. J. Cho, Modes of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Somatization. *J. Korean Neuropsychiotr Assoc*. 40(3). 2001.
- [30] Goldman & Haaga,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in Marital and Other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83, No 8, 1995.
- [31] Anderson & Lawler, Gender Differences in Patterns of Dynamic. 1995.

안 관 수 (An, Kwan Su)



- 1986년 8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학사)
- 1990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1994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3년 5월 ~ 현재 : 인문사회융합콘텐츠 센터장
- 관심분야 : 평생교육학, 교육사회학, 디지털인문융합연구
- E-Mail : ksan@wonkwang.ac.kr

이 상 현(Lee, Sang Hyeon)



- 2014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평생교육학, 교육사회학, 디지털인문융합연구
- E-Mail : perio114@hanmail.net